

There is a constant tendency for the meaning of words to be distorted and their use devalued, so that words which were once full of life are now dead or dying. The word "fellowship" is an example. It is an overworked and undervalued term. In common usage it means little more than a warm friendliness or superficial mateyness – perhaps a good gossipy get-together over a cup of coffee or meal. 단어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평가절하 되어 한 때는 생생한 의미를 전달 했던 단어도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제" 라는 단어가 한 예입니다. 이 단어는 많이 쓰여지면서 의미가 퇴색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따뜻한 친절함 혹은 표면적인 우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는데- 예를들어 커피나 식사를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정도의 사이를 나타내는데 쓰입니다.

However, there are strong forces at work toward its recovery – and those forces are biblical, historical and practical. To begin with, we have good biblical warrant for asserting that it is not good for man to be alone (Genesis 2: 18). Calvin saw this affirmation as having a wider reference than just to marriage. Aloneness is not the will of God either in ordinary life or in the Christian life. People need fellowship (which we will define more clearly shortly), and it is God's will that they should have it.

하지만 교제를 회복하려는 강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성경적, 전통적이며 실용적인 것입니다. 먼저 사람은 혼자 있으면 좋지 않다고 단언하고 있는 성경에 나온 경고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8). 칼뱅은 이부분을 결혼에만 국한한 것이 아닌 더 넓은 의미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기독교인의 생활 혹은 그 외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제를 (곧 교제에 관해 더욱 상세히 살펴볼텐데) 필요로 하며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This basic, biblically recognized need is to some extent met by our Sunday worship services, morning tea and lunch. But there is always something unnatural and subhuman about large gatherings. The larger they become, the less the individuals who compose them know and care about each other. Indeed, crowds can actually perpetuate aloneness, instead of curing it. You can feel very alone and lost in a large group of people, can't you? There is a need, therefore, for large congregations (indeed even those of 50 people or more) to be divided into smaller groups, such as we might imagine the house-churches were in New Testament times (Romans 16:5, Philemon 1,2) The value of the small group is that it can become a community of related persons – linked together. In such a group the benefit of personal relatedness cannot be missed, nor its challenge avoided or evaded.

이렇게 기본적이고도 성경에서도 언급된 우리들의 필요인 교제는 일요일 예배, 모닝티 시간이나 점심을 함께 함을 통해서 어느정도 채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에는 부자연스럽고도 인간적이지 못한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큰 그룹이 되면 될 수록, 개개인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관심을 쏟는데 힘들어집니다. 진실로, 군중은 혼자 있는 것을 없애준다기 보다, 더욱 심화시켜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더욱 혼자 있다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큰 회중 (50 여명 이상) 은 소그룹으로 나뉘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소 그룹은 신약시대의 (로마서 16:5, 빌레몬서 1,2) 가정 교회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그룹은 잘 아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 서로 잘 연결 될 수 있다는데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그룹에서는 개인적인 친밀감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도전들이 또한 있습니다.

This is true of the human family, isn't it? Our growth into maturit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God, takes place in the context of a family group. It is the complex pattern of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which, more than anything else, governs our development into adulthood. It is the only child and the one-parent family who often suffer, although even in their case there are usually relatives, neighbours and friends. Similarly, it is lon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who remain aloof from a more intimate Christian fellowship, who are likely to stunt or damage their spiritual growth. Therefore, I do not think it is an exaggeration to say that small groups, Christian family or fellowship groups, are indispensable for our growth into spiritual maturity.

이것이 인간이 이루는 가족의 실질적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가족 안에서 우리는 성숙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복잡한 관계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인으로 발달하게 합니다. 외동으로 자라거나 편부모 가정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친척이나 이웃들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게도, 회중에서 친밀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는데에 냉담한 신자는 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므로 저는 소그룹들과, 크리스찬 가족 혹은 교제 그룹은 영적인 성숙함으로 자라나게 하는 우리의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urning from a biblical to an historical argument for small groups, many famous movements of the Spirit of God have either begun or expressed themselves in the intimacy of such fellowship. This was certainly true of the English Reformation, whose roots can be traced to the group of scholars who met in the White Horse Inn in Cambridge to study Erasmus' Greek Testament. Reference could also be made to the original Holy Club in Oxford which nurtured the Wesleys and to the Praying Societies of Scotland and to the fellowship meetings of the East African revival. It is from such small and unpretentious beginnings that great movements have sprung up and spread.

소그룹의 성경적인 논의에서 역사적인 논의로 넘어가자면, 많은 유명한 성령운동은 이러한 교제의 친밀함 가운데서 시작되거나 드러났습니다. 캠브리지에서 에라스무스 헬라이어 신약본을 공부하던 White Horse Inn에서 만나던 학자들에 뿌리를 둔 영국의 종교 개혁이 바로 그렇습니다. 옥스포드의 Holy Club에서 자라난 웨슬리, 스코트랜드 기도회, 동아프리카의 부흥을 이끈 교제 모임들이 이러한 예입니다. 이렇게 작고 수수하게 시작된 모임들이 위대한 운동을 일으키며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The third argument is pastoral. Be they in small, medium or large churches, most ministers or pastors find that there are simply not enough hours in a day to do all that has to be done, and one casualty of this is pastoral care. Coupled with this is the fact that whilst people have different expectations of their minister's role, they almost always expect pastoral care to be part of it. In most people's minds this means being visited and cared for personally by the minister. But the minister cannot hope to see or visit all members of the congregation regularly, at least if it is at all sizeable. This is one reason why the Session has provided diaconal training last year and we have elected 12 deacons so that others are specifically equipped and called for this caring ministry.

세번째는 목회적인 논의입니다. 작은 교회든 중형이든 대형교회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담임 목사나 목사들은 해야 할 일들을 할 시간이 부족하며, 이것의 한 예가 목회적인 상담/돌봄입니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은 목사의 역할 관해서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은 목회적인 돌봄이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 속에는 이것이 목사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방문을 받거나 돌봄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 42-47; 빌립보서 1: 1-11; 히브리서 10: 19-25)

목사는 회중의 모든 신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방문할 수 는 없으며 적어도 상당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당회가 작년에 집사 역할 교육을 실시해서 12 명의 집사를 선출한 이유 중 하나로 이들이 돌보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But small groups, fellowship groups, can and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area of pastoral care. The Bible indicates that each of us is our brother's keeper. It even hints that in one sense a certain oversight is entrusted to every Christian, to every member of the congregation. "See to it", we are told in Hebrews 12: 15, "that no one fails to obtain (or misses) the grace of God" – and the verb used for "see to it" is the verb meaning overseeing. If this is so, then it is in fellowship groups that the ideal can become a reality, for in these groups the Session delegates some pastoral oversight to the leaders of the group, and all in the group learn to care for each other.

그러나 소그룹, 교제 모임은 이러한 목회적인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가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모든 기독교인, 회중의 모든 신자들에게 이러한 감독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하라", 우리는 히브리서 12: 15 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언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 - 여기서 "없도록 확실히 하라" 라는 동사가 "지켜본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제할 수 있는 소그룹 안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그룹들을 위해서 당회는 이 그룹들의 리더들에게 목회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며 그룹에 속한 모든 이들은 서로를 돌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Certainly the house-church or home-group movement has been steadily gathering momentum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 most cases it has no articulated biblical, historical or pastoral rationale. It seems to be largely spontaneous, a genuine movement of the Holy Spirit. If it needs to be explained in terms of human experience, it is probably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a protest against the dehumanizing lack of community in secular society and the superficial formalism of much church life. There is a widespread hunger for a life which is genuinely human and absolutely real.

가정교회나 가정모임 운동이 세계 여러 곳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모임에는 성경적 역사적 목회적 이론적 바탕은 없습니다. 이것은 크게 성령의 자발적이며 순수한 운동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이 운동은 아마도 세속적인 사회의 공동체 부족으로 인한 비인간화와 대부분 교회 생활에서의 표면적인 형식주의에 대한 저항의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히 인간적이며 절대적으로 진정한 삶에 관한 굶주림이 퍼져있습니다.

But these images fall far short of what the New Testament calls fellowship or "koinonia". We need to recover genuine, authentic New Testament fellowship. At the heart of "koinonia" is the adjective "koinos", meaning "common" so that the verb "koinoneo" is to "share". In particular "koinonia" bears witness to 3 things we hold in common. First, it expresses what we share in together (our common inheritance). Secondly, what we share out together (our common service). Thirdly, what we share with each other (our mutual responsibility).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신약에서 교제 혹은 "코이노이아"라고 부른 모습들과는 많이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보여지는 참되고 진정한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코이노이아"의 핵심은 "코이노스"라는 형용사, "같은"이라는 뜻, 그래서 "코이노네오"라는 동사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이노이아"는 우리가 같이 가지게 되는

3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이노이아는 우리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 (우리 모두가 받는 유산). 둘째로는, 같이 나뉘야 하는 것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하는 일). 셋째로는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는 것 (우리가 상호적으로 가지는 의무) 입니다.

1. Our Common Inheritance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는 유산

In modern, common usage fellowship describes something subjective, the experience of warmth and security in each other's presence. And so, you will hear someone say, "We had good fellowship together". But in biblical usage "koinonia" is not a subjective feeling at all, but an objective fact, expressing what we share in together. So Paul could write "you share in God's grace with me" (Philippians 1: 7). The apostle John could write "....that you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1 John 1: 3). While Paul adde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2 Corinthians 13: 13). Thus authentic fellowship is Trinitarian fellowship. It bears witness to our common share in the grace of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현대에서는, 교제라는 단어의 사용이 주관적인 무엇인가, 상대방의 존재에서 오는 따듯하고 안정감을 주는 경험을 묘사하는데 쓰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좋은 교제를 나누었어"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코이노이아"는 이러한 주관적인 감정이 전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에 관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서 1:7). 사도 요한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일서 1:3).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 (고린도후서 13:13)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란 삼위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에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Is this not what makes us one? We come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cultures. We have different temperaments, gifts, interests, education and economic circumstances. And yet we have this in common: the same God as our Heavenly Father; the same Jesus Christ as our Saviour and Lord; and the same Holy Spirit as our indwelling Comforter. It is our common participation (our "koinonia") in God (Father, Son and Spirit) which unites us. And this is most vividly expressed in the Lord's Supper – which we are about to celebrate. For as Paul said: "is not the cup of thanksgiving for which we give thanks a participation ("fellowship"/"koinonia") in the blood of Christ? And is not the bread that we break a participation ("fellowship"/"koinonia") in the body of Christ?" (1 Corinthians 10: 16).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성질, 은사, 관심, 교육과 경제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로서 같은 하나님으로, 구원자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서 위로를 주시는 성령을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참여하게 되는 부분이며 (우리의 "코이노이아")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것은 성찬식에서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곧 할 것인데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교제", "코이노이아")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교제", "코이노이아") 아니냐?" (고린도 전서 10: 16)

2. Our Common Service 공통된 일

"Kononia" also expresses not only what we have received together, but what we give out together – our common service. The first Christians in Acts 2 "devoted themselves....to the fellowship" (Acts 2:42). This is the first use of "koinonia" in

the New Testament. It does not occur in the Gospels. Indeed it couldn't, for there was no "koinonia" before the Holy Spirit came. It is clear from Acts 2:44 that Luke is thinking of the common life which the early Christians enjoyed, for "koinonia" is the word Paul used for the collection which he was organizing for the famine-stricken churches in Judea and "koinonikos" means generous. "코이노이아"는 우리가 같이 받은것에만 국한되어 표현된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 주게 되는 것도 포함합니다 -우리의 공통된 직무. 사도행전 2 장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더라" (사도행전 2: 42). 이것이 처음 신약에서 "코이노이아"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쓰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럴 수 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코이노이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4 절에서 누가가 초기 크리스찬이 누렸던공통된 생활에 관해 생각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지역에 기근이 닥친 교회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할 때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으며 "코이노코스"라는 말은 "후하다" 라는뜻입니다.

Although only a minority of Christians is called to total voluntary poverty, we are certainly to love one another and to care for our poverty-stricken brothers and sisters. But "koinonia" challenges us to share not only our material wealth but also our spiritual wealth, that is, our knowledge of the gospel. Thus Paul could write to the Philippian Christians, "I thank God....for your partnership ("koinonia")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Philippians 1:5). And, in a sense, we can see Peter, Andrew, James and John as an illustration of this. They were partners in their little fishing business on Lake Galilee. Now Jesus calls them to be partners in fishing for human beings, and catching them for the kingdom of God. Yet there is a strange reluctance among us to engage in personal evangelism, isn't there? Our fellowship groups provide the perfect environment for us to encourage one another in personal evangelism, to pray for one another in that witness and to hold one another accountable in love. 그리스도인들 중 소수 만이 자발적인 가난을 소명으로 받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하고 가난이 닥친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코이노이아"는 우리가 물질적인 부 뿐만아니라 영적인 부, 이것은, 복음의 지식을 나눠야 한다는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 인들에게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서 1:5)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와 앙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하는 동업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개인적인 복음 전파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이상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제 그룹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복음 전파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에 완벽한 환경이 되어 줄 것이며 이것은 서로를 사랑으로 붙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3. Our Mutual Responsibility 서로가 가지게 되는 책임

In the first two aspects of "koinonia", we are all facing the same way. But in the third aspect of "koinonia", when we concentrate on what we share with each other, we are not facing in the same direction. We are rather gathered in a circle facing each other. Put another way, in this third aspect, we are neither all recipients, nor are we all givers, but we are a partnership in giving and receiving. This was the case with Paul and the Philippian Christians since he had shared the gospel with them and they had shared a gift with him. As Paul writes "Moreover, as you Philippians know, in the early days of your acquaintance with the gospel, when I set out from Macedonia, not one church shared with me in the matter of giving and receiving, except you only; for even when I was in Thessalonica, you sent me aid again and again when I was in need" (Philippians 4: 15-16).

"코이노이아"의 처음 두부분에서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번째 "코이노이아"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서로와 무언가를 나누는데 집중할 때에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형으로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세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는 모두 받기만 하는 사람도, 주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며, 우리는 주고 받는 동업자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립보 크리스찬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그들은 바울에게 선물을 주었던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번이나 나의 쓸 것을보내었도다" (빌립보서 4:15-16)

Similarly, Paul saw the collection he was organizing from the Greek churches for the Judean churches as a symbol of Gentile-Jewish solidarity in the body of Christ. For since the Gentiles had come to share in the Jews spiritual blessings, it was appropriate that the Jews should share in the Gentiles' material blessings (Romans 15:27). Another example is found, as we have seen recently in our sermons on Romans, in Romans 1 where Paul says that he longs to visit them, partly to impart a spiritual gift to strengthen them, and partly that they might be mutually encouraged by each other's faith, both theirs and his (Romans 1:11-12).

비슷하게, 바울은 헬라 교회들의 유대 교회를 위한 기금을 마련을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방인-유대인 교회의 연합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축복을 나누게 되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질적인 축복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27). 또 다른 예는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1 장에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여, 영적인 선물로 복돋고, 서로의 믿음으로 돌 다, 바울과 그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1-12)

It is in this connection that we need to consider the many "one another" words in the New Testament. They describe the reciprocity (the "give and receive") of Christian fellowship. The commonest example is the command to reciprocal love. Jesus said,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John 13:34-35). This command is not romantic or idealistic. To love each other has very practical consequences, both negative and positive. Negatively, if we love each other, we will not stand in judgment on each other, or speak evil against each other. We will not bite or devour each other (as if we were wild animals). And we will not provoke or envy or lie to each other. Positively, if we love each other, we will be kind and compassionate to each other, forbear and forgive each other, submit to each other and build each other up, practice hospitality to each other ungrudgingly, encourage each other, admonish and comfort each other, pray for each other and bear each other's burdens. The writer of the letter to the Hebrews picks up the importance of this sharing with each other in the body of Christ when he says, "Let us hold unswervingly to the hope we profess, for he who promised is faithful.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Hebrews 10:23-25).

이러한 배경에서 "서로가" 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상호성 ("주고 받는") 것에 관하여 묘사합니다. 가장 흔한 예는 상호 간에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4-35). 이 계명은 로맨틱한 것도 이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실질적인 결과, 긍정적인 것을 행하고 부정적인 것을 행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면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에게 악한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물어뜯거나 저주를 퍼붓지도 않을 것입니다 (야생동물들 처럼).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공격하거나 질투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살펴보자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에게 친절하고 연민을 가지며 보듬어주고 서로 용서할 것이며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불평없이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며, 안위하고 서로 기도하여 주며 짐을 나눠 질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쓴 저자는 바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3-25)

One of the most encouraging features of the world Christian scene today has been the recovery of small groups. Today there is a worldwide proliferation of cell groups, home groups or house churches. I think that it is best to call such groups in our church "fellowship groups" because we are anxious that they will exhibit the riches of New Testament koinonia. Fellowship groups express what we share in together as we pray and feed on Christ in his Word. They express what we share out together. They are encouraged to be outward-looking, to look for opportunities for service, such as inviting friends to evangelistic events, visiting the sick and elderly, providing transport for those unable to travel by themselves, volunteering to provide food or child-minding for a church event and interceding for the church and the world. Fellowship groups also share with each other. Every time they meet, an opportunity should be given to members to share their joys or sorrows, doubts, fears and needs. Thus fellowship group leaders become mini-pastors, and the pastoral oversight of the congregation is decentralized and shared.

오늘날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 가장 고무적인 부분 중 하나는 소그룹의 회복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구역모임, 가정모임, 가정 교회가 번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들은 이러한 그룹은 우리 교회에서 "교제 그룹"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의 코이노이아의 풍요함을 드러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제 그룹은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공유하는 믿음을 드러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나눠 주게 되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그룹들은 밖으로 눈을 돌려, 친구를 복음 집회나, 아프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방문하거나, 혼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제공하거나, 교회 일에 아이들을 돌보거나, 세계와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기회들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룹의 일원들이 기쁨과 슬픔 의문과 두려움 필요함을 말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 그룹의 리더들은 작은 목사가 되는 것이며, 회중의 목회적인 돌봄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 지게 되는 것입니다.

We need constantly keep before our eyes the three-fold biblical ideal – our common inheritance, our common service and our mutual responsibility – or true "koinonia". We need to take care that the groups do not become unbalanced and degenerate into being merely Bible reading groups, study groups or action groups. We want fellowship groups to be true to their name, expressing the fullness of "koinonia". So we need in each group to ask ourselves regularly: "Are we growing in Christian maturity together?" "Are we serving the Lord, the

church and the world together?" "Are we increasing in love and care for one another?" If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is "Yes!", then we may say with confidence and joy: "We had good fellowship together".

우리는 계속해서 3 가지의 성경적인 이상에 눈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유산,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책임-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이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룹들이 그저 성경 읽기 모임이나, 성경 공부모임, 혹은 일 만 하는 그룹이 되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제 그룹이 진정 그 이름에 걸맞게 "코이노이아"를 충만히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룹 안에서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성숙하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과 교회 그리고 세계를 함께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돌봄에 있어 자라나고 있는가?" 만약 이러한 질문들에 "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는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men

Prepared by Rev. Grant Lawry,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Canterbury, Melbourne, Australia for use of the Canterbury Congregation